

대숲에는

말이 산다

김문홍 희곡집



이 작품의 주요 공간적 배경은 도림사 아래 대숲이다. 여기서의 대숲은 진실의 진원지와 소통의 이중적 의미를 지닌 상징적 공간이다. 천을 이용한 대나무와 광케이블이 열기설기 엉켜져 있다. 모든 인물들은 시종일관 무대의 좌우에 활시위처럼 휘어진 구도로 앉거나 서 있다. 이들은 장면에 적합한 상징적 마음을 하다가, 자신들의 차례가 되면 무대 중앙으로 나와 연기한다. 대숲에 열기설기 뒤엉킨 광케이블은 복두장과 그의 아들을 고문하는 도구로 활용되기도 한다.

대숲에는 **민**들이 산다

대숲에는 **민**들이 산다

인쇄 2009년 10월 20일 발행

지은이 김문홍

펴낸이 김상배

펴낸곳 도서출판 해성

600-013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3가 19번지 상동빌딩 3층

출판등록 1989년 4월 6일 제과 1-117호

전화 : 051)465-1329 팩스 : 051)465-0485

<http://www.book0485.com>

E-mail: book0485@chollian.net

김문홍©2009 Printed in Busan Korea
ISBN 978-89-7921-127-6

※ 이 책은 2009년도 부산문화재단의 제작비 일부를 지원받아 발간되었습니다.
※ 저작권의 협의하에 인지는 생략합니다.

회곡에 관한 몇 가지 단상斷想

I.

1980년에 첫 회곡 「수직환상」을 교서극단 한세벌에 의해 무대 위에 올렸으니 올해로 어언 서른 해가 된다. 1987년 첫 창작회곡집 『인개주의보』를 발간하고 10년 터울로 세 권의 회곡집을 발간했는데, 네 번째 회곡집은 터울이 좀 앞당겨져 3년 만이다. 회감을 넘기고 나서부터 회곡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것 같고 작품 발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제야 첩이 좀 드는 모양이다. 그동안 십여 년의 연기 생활, 서너 편의 연출 작업을 모두 접고 이제 는 오로지 회곡 창작과 공연비평에만 전력투구하고 있다. 왜 하필 회곡인가? 여타 장르와는 다르게 공연 현장에서 내 작품에 대한 반향을 즉각 감지할 수 있다는 직접성, 공연은 끝나고 나면 사라지지만 회곡은 그 자리에 오롯이 남아 또 다른 연출자를 기다린다는 공연텍스트로서의 영원성 등이 회곡 창작의 보람이고 원천적 에너지이다.

II.

연극의 기능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책무는 대사회적 발언으로서의 치열한 현실인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좋은 연극은 관객의 의식

을 성숙시키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물론, 치열한 자기 성찰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인지 나는 재미를 화두로 삼고 있는 요즘의 감각적이고 말초적인 사랑 타령의 연극 텍스트는 쓸 줄도 모르고 아예 쓰기도 싫어한다. 회곡은 문학과 연구성이라는 이중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면 나는 '문학성'을 택하고 싶다. 연구성이 모자란 회곡은 연출가의 창조적 상상력에 의해 보완될 수 있지만, 문학성이 부족한 회곡은 그 어느 누구도 아닌 극작가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적으로 묶여져 나왔던 내 회곡들은 거개가 다 공연을 통한 수정과 보완의 문학성을 획득한 이후에 선정되어진 것들이다.

III.

가끔 현장 공연을 살펴보면 문학으로서의 공연 텍스트(회곡)를 무대접하는 광경을 목격할 때가 더러 있다. 현수막이나 전단지에 작가 이름을 올려놓지 않는 경우, 연출자가 작가와의 충분한 조율도 없이 함부로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 시상식의 경우 회곡상의 상금을 연출상이나 연기상의 상금보다 낮게 책

주었으니 말이다. 조선 후기 문체반정의 반체제 문인인 이옥을 소재로 한 작품은 이미 완성되어 있고, 유일한 백제 기사인 「정음서」를 소재로 지금 한편의 회곡을 구상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V.

그 동안 30여 년 동안 내 작품을 공연해 준 극단들에게 이 작품집을 바친다. 교사극단 한새별, 예랑, 예술극장, 천위무대, 사계, 맥, 하늘 개인 날, 시나위, 구미 레파토리 등의 극단들이 바로 그렇다. 이들 극단들이 있었기에 어질큰 내 회곡들이 제대로 꼴을 갖추고 결음마를 하게 되었지 않은가. 물론 내가 가장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가난한 서생에게 시집과 제대로 옷 한 벌 못 입어 본 채 목목히 내 길을 지켜보아 온 아내이다. 이제 어느 누구든지 공연을 통해 내 작품들을 갖기갈기 찢어 붙여 제대로 회곡의 꼴을 갖추게 하는 일만 남았다. 끝으로 발간 기회를 준 부산문화재단에 감사드린다.

2009년 초가을

극단 <사계> 공간소극장에서 작가 김 문 홍

정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것들이다. 물론 내 회곡은 훌륭한 연출자나 배우들에 의해서 세상에 알려졌다. 그들에 의해 피와 살이 더해지고 제대로 옷이 입혀져 무대 위에서 결음마를 하게 되었으니 이 어찌 고마운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회곡은 개나 소나 아무나 쓸 수 있다는 선부론 생각, 회곡은 공연의 보조 수단이라는 엄신여검은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공연은 끝나고 나면 사라지는 일회성의 생명이지만 회곡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영원성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이다.

IV.

이 네 번째의 회곡집에 실린 작품들은 모두 최근에 쓰인 것들이다. 2008년에 쓰여서 공연된 작품이 세 편, 2009년에 공연된 작품이 한 편, 그리고 몇 달 전에 쓰인 미공연의 작품 「공중누각」이 바로 그렇다. 이 작품은 부산의 '영산박' 주점이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상상력이 덧칠해진 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호자 노릇을 한 작품이 표제적인 「대숲에는 말(말)이 산다」일 것이다. 이 작품은 많은 상을 수상했을 뿐만 아니라 내게 역사물에 천착하는 계기를 만들어

004 책을 내면서

011 대술에는 말(言)이 산다

061 오얏꽃 아래 붙여귀로 잠들다
- 양산 허위

123 녹야청강 배 띄워라

171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

227 공중누각(空中樓閣)
- 양산박 사람들

